

뱅덕어멈

설 중 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얼 마전 도리이 게이오대 총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교육은 번영의 시대만을 목격해 온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할 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어렵게 오늘을 건설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일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정확히 해당되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자의 일치일란(一治一亂)이란 말대로,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적 번영의 최고점은 바로 혼란과 공황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니, 내일을 예비하기 위해 어제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들 중에는 정말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자식들을 과잉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물론 교육열과 엄밀하게 다르다.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어린아이가 목욕탕에 가는데 때밀이값을 주어 보낼 정도가 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랄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식들을 상당히 과보호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마 자신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자랐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나는 자식에게 과잉보호적인 부모들을 대할 때면, 항상 『심청전』의 심청이와 뱅덕어멈을

생각해 본다. 심청이가 과잉보호적이라면, 뱅덕어멈은 이와 달리 스파르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심청전』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이다. 눈을 뜨다는 것은 육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를 정신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즉 의식을 각성시키고 고양시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눈 뜨게 하는 일은 우리 교육의 영원한 목표이기도 하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듯이, 모르는 사실(지식)을 일깨워주고 아울러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성숙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은 두 사람이니, 심청이와 뱅덕어멈이 그 주역들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았기에 심봉사가 눈을 뜬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심청이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먼저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한바탕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한다.

심봉사는 본래 맹인이 아니었으나, 집안

이 몰락하면서 일찍이 눈이 멀게 된다. 눈이 먼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무의식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식상태라는 것은 사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지를 말한다. 즉,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 무의식상태에 빠졌으나,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의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현숙한 아내 덕택이었다. 그의 아내 광씨부인은 일 년 삼백육십 일을 하루도 놀지 않고 품을 팔아 돈을 모아 이웃의 착실한 곳에 이자로 빚을 주어 실수없이 받아들여, 춘추시향과 봉제사와 가장공경이 시종이 여일하였으니, 덕행과 미모를 두루 갖춘 전형적인 현모양처였던 것이다. 이런 처를 두었던 심봉사였기에 몸은 비록 눈이 멀었으나, 실생활은 눈 뜬 사람과 다름없이 의식적으로, 곧 예절을 갖추고 체면을 차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봉사의 처는 늦게 얻은 자식 첫 한 번도 못 먹고 얼굴도 채 못보고 죽으면서, 심청이 아버지의 눈노릇을 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이후 심청은 어머니의 일을 이어받아, 이웃사람들의 추렴짓을 얻어 먹으면서 잔병없이 자란다. 그리고 4~5세가 되자 지팡이 한끝 잡고 아버지 앞을 인도하여 원근촌 다니면서 조석이면 밥을 빌고, 낮이면 전곡 동냥, 그러저러 지내어서 일곱살이 되니, 심청이가 부친전에 여짜오되, “아버님 늙으시고, 안흥이 부족하니 집에 앉아 계옵시면 나 혼자 밥을 빌어 봉양을 하오리다.” 한다. 이에 심봉사는 부득이 허락하고, 이후 집에서 심청이 언어나 준 밥으로 세월을 보낸다.

결국 심봉사는 눈이 멀었지만, 광씨부인과 심청이의 과잉보호적인 도움으로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즉, 그는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눈 뜬 사람과 다름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두는 곧 그의 아내와 딸 덕분이었다. 이러한 생활은 그가 개천 속에 온 몸이 풍덩 빠지게 되었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그가 물에 빠져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진짜 병신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된다.

이때 그는 정신적으로도 눈 먼 사람이 된다. 즉, 그는 내면적으로도 무의식상태로 빠져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딸이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거금인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그 공양미 삼백 석 때문에 딸을 판 뒤에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멀어져 완전히 미친, 무의식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제 그는 정신적으로도 미쳤기에, 이후 체면과 예절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마음의 눈노릇을 해왔던 심청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평소 의식(체면)에 가려져 있던 무의식적인 외설적 본능에 빠져서, 동네 과부 있는 집들을 공연히 찾아다니며 선웃음과 뜻장담을 무한히 하였다. 그 때 마침 뺨덕이라 하는 홀어미가 있었는데, 생긴 형용 하는 행실 만고 사기 다 보아도 짝이 없는 사람이라, 인물 행실 이러하니 눈 있는 사람이야 누가 돌아보겠는가 하는데, 심봉사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즉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뺨덕어미의 자청에 부부되어 밤낮으로 짝타령을 하며 세월을 보낸다. 이런 생활로 살림살이가 떡, 술값에 다 녹아나갔다. 이런 무의식적인 생활중에 황성에서 맹인잔치가 열린다고 해서 심봉사가 뺨덕어미와 함께 가지만, 뺨덕어미는 중간에 다른 큰 맹인을 만나 도망가 버린다. 그러자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심봉사는 발광을 하며, 앉았다 섰다 했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심봉사는 혼자 어렵사리 대궐문에 도착하여,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거기서 즉은 줄 알았던 딸이 황후가 된 것을 알고는, 딸을 보고 싶은 욕구와 이제까지 눈을 뜨고 싶던 욕구 등이 합쳐져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이 부분은 『심청전』의 절정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심봉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잔치가 끝난 후에, 심생원은 임금의 장인이 되어 1품벼슬을

제수받아 이후 잘 살게 된다.

물론 심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심청이의 지극한 효성 때문이었다. 많은 고전작품에서 지순한 사랑이 주인공을 구원하듯이, 심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심청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인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물론 지극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법에서는 재고해 보아야 할 점이 많을 것 같다. 지나친 비료가 꽃이나 나무들을 말라버리게 하듯, 지나친 사랑과 과잉보호가 자식들을 일찍 시들게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뽕덕어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뽕덕어미는 앞에서 약간 언급했듯이, 심청이와는 달리 심봉사를 엄하게 다스려서 눈을 뜨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뽕덕어미를 나쁜 사람으로만 치부한다. 그것은 그녀가 게으르고 부도덕하면서 동시에 낭비벽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를 '추악한 여인'이니 '부도덕한 아내'니 또는 '악처'라고까지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삼아야 할 것은 이런 그녀의 행위가 선하나 악하나가 아니라, 이런 그녀의 행동이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뽕덕어미의 이런 역할이 심봉사를 자극하고 충동질하여, 그로 하여금 눈을 떠야겠다는 자각을 하도록 만들어주었다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청이보다 더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도 보고 싶다. 즉, 그녀는 철저히 스파르타식으로 심봉사를 대했으니, 항상 심봉사로 하여금 스스로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어느날 심봉사가 본관에게 불려가자, 뒷집 머슴 후려다가 씨암탉을 잡고는, 낮거리를 시작하다가 마침 돌아온 심봉사에게 들켜고 만다. 심봉사가 이를 눈치채고, "부르고 또 불려도 대답도 아니하니 놀 믿고 살자는가"하며 불평을 하자, 그녀는 도리어 거짓말로 "그 새에 들어와서 노처블취 아니한다. 전처만 자랑하니, 나는 그 꼴 보기 싫어 전처

없는 총각서방 기어이 얻을 터"라며, 오히려 심봉사에게 강짜를 부린다. 이에 심봉사는 오히려 잘못했다고 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심봉사는 혹시라도 뽕덕어미가 그를 떠날까봐 불안해 한다. 그만큼 뽕덕어미는 항상 심봉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황성 맹인잔치에 가면서도, 뽕덕어미 잃을 염려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염려가 모두 그 자신이 눈이 없기 때문임을 알고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로 눈 하나도 못 얻었노."하면서 눈없는 신세 타령을 한다. 곧 뽕덕어미는 심청이와는 달리 심봉사로 하여금 눈없는 실움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심봉사는 눈을 뜨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강해졌을 것이다.

즉, 뽕덕어미는 항상 심봉사로 하여금 눈을 뜨고 싶은 충동을 강화시킨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교육학적으로 말하자면, 늘 동기유발을 시키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을 갖도록 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교훈이 있다면, 참다운 교육이란, 심청이처럼 자애로우면서도, 뽕덕어미처럼 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서로 조화시켜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일 것이다. 마치 헬렌 켈러에게는 자상한 부모님도 계셨지만, 가혹한 셸리반 선생님이 계셨듯이.

그러므로 『심청전』은 오늘날 과잉보호나 폭력교사문제로 우리 교육계가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한국의 교육방향을 한번쯤 다시 음미해 보게 하는 훌륭한 고전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

설중환/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주우석대와 계명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금오신화 연구』, 『판소리 사설연구』 등이 있고, "구운몽의 불교세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